내 생애에 누릴 영광 두 개

(나훔 2:1~13)

1.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13.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생애에 누릴 영광 두 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생애에 누릴 영광 두 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영광이 언급됩니다. 영광이란 히브리어 "카보드"로써 무겁다,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이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무게감입니다. 어떤 대상이 마음에서 큰 존재감을 가지게 되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수여합니다. 그 종목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낸 선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존재감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서 남편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싫어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서 1등을 하든 싫어서 1등을 하든 내 마음에서 남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돈이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면 돈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의 독립이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이었다면 나라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가장 큰 존재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민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써 야곱과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물론

선민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만 야곱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야곱의 간교한 죄악이 우리를 대표하기에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차별화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민에게는 평생에 누릴 영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배우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아카데미 주연상이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의 받는 금메달도 한 순간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평생 동안 하나도 아닌 두 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곱도 선민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스라엘도 선민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이름을 통해 선민이 누릴 수 있는 두 개의 영광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장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1장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2절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를 이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잘 이해됩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또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두 개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연관해서는 에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야곱의 존재감이 더 컸다는 의미합니다.

야곱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포위되어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제일 큰 존재감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크고 무거운 존재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마음에서 존재감이 제일 큰 사람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혹은 마윈 같은 사람들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존재감이 어마

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또한 IT기술이 주목받는 현 시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전적인 은혜가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존재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으로 나를 느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형상화한 사건입니다. 백 번, 천 번, 만 번을 말해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의 존재감을 크게 여기십니다. 설령 대통령조차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죽어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은 예수님의 존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존재감의 1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완전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련이나 연마를 통해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선시 하고, 사랑하는 이삭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앞에서든 자녀 앞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큰 존재감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들보다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큰 존재감으로 확보했을 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죽고 자녀에 대해서 죽고 돈에 대해서 죽고 직장에 대해서 죽고 건강 등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존재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그 상태를 유지해나갑니다. 이것만 했을 뿐인데 바로 이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인들이 했던 어떤 일보다도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와 세상 전체의 일을 이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에게 강요해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죽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인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일을 이뤘을지라도 세상에서 1등하고자 한 일이라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존재감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칭기즈칸이 역사 속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인간세상 전체를 이기는 것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앗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너를 향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선민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민이 마주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마주 향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마주할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개의 영광을 누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제일 큰 존재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눈앞에 있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큰 존재감의 주인공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써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됩니다. 자녀 앞에서 세상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계획들이 자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마주대하는 대상이 앗수르처럼 나를 대적하는 존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위해 앗수르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마주대하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향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지가 결정됩니다.
앞서 본 미가서 7장 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마음에서 집안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은 것입니다. 배우자의 문제로 고민하는 동안에는 싫든 좋든 마음에서 배우자가 1등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배우자를 계속해서 격동시키실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이 고약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영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배우자의 존재감이 1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등이 되셔야만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과 인정받기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1등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창들이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1등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주님 안에 계셔야 할 분들이 주님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고 존재감의 1등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보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마주대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100% 붙잡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나 호의를 베푸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두 개의 영광을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최고의 존재감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감의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앗수르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백 번 부르고 천 번 부르고 만 번을 불러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